

다랑쉬 마을 — 뜨내기들의 삶터

이 영 권

(제주 4·3 연구소 사무국장)

사람이 살고 있었다. 폭낭(팽나무)으로 미루어 보면 2백년 째은 되었을 것도 같고, 반면에 그런 웃드리(중산간)서 뭐 해먹고 살았을까 생각하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같은, 그런 마을에 언제서부터인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육중하면서도 미끈한 자태의 다랑쉬 오름과 그 곁에 납작하게 엎드린 아끈다랑쉬만이 이 땅 위에서 전개되었던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켜보았을 뿐이다.

바로 이 마을이 지금은 사라져 버린 다랑쉬 마을이다. 바람이 불면 스걱대는 대나무 숲의 몸 비비는 소리, 마을 중심 폭낭의 앙상한 겨울 풍경, 말라버린 쇠물통, 그리고 흩어진 사기 그릇 파편만이 지난 날의 삶의 흔적을 전하며 방문자를 맞는다. 4·3의 슬픈 이야기를 현실로 증명해주었던 다랑쉬굴 사건의 기억 때문인가? 낙엽 떨어진 팽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다랑쉬의 말없음은 왜 그리도 서러운지……

그런데 다랑쉬 마을이 주목을 받는 까닭은 이 마을 자체의 특성이나 인상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주변 다랑쉬 오름의 유명세에서 기인했거나, 아니 그보다는 1992년 온 섬을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다랑쉬굴 4·3

희생자 유골 발굴'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굴의 희생자들은 해안 마을인 하도와 종달 사람들로서 다량쉬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과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동굴과 인접한 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4·3 당시에 폐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량쉬 굴과 연결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량쉬 가는 길

다량쉬 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제주시와 표선을 잇는 동부산업도로를 거쳐 대천동, 송당을 지나는 방법과 일주도로를 따라 동으로 가다가 평대나 세화 지경에서 중산간으로 올라 붙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다량쉬 마을은 정기 노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중산간에 위치해 있어서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자가용을 이용해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일주도로를 택해 동촌마을들을 차례차례 지나다가 일단 구좌읍에 들어서면 멀리서도 한눈에 다량쉬 오름의 존재를 보게 된다.

동촌마을들, 바닷바람이 강하고 빌레왓(암반지대)과 모살판(모래토양)이 대부분인지라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은 결코 아니다. 제주도 전역을 통틀어 고인돌이 발견되지 않는 곳도 이 지역이고 보면 선사시대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서촌마을 사람들보다 한시간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가야만 생존이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동촌 여자들이 기가 세다는 말을 듣는 것도 아마 이와같은 척박한 자연환경의 산물일 것이다.

동북마을을 지나며 마주한 팽나무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1) 이 책의 전체적인 테마가 '잃어버린 마을'인 까닭에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면서 다량쉬 '마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다량쉬굴 4·3 희생자 유골 발굴' 사건이 너무도 큰 파장과 의미를 던져 주었기에 이 글의 뒷 부분에서 이 사건도 다시 조명해 볼 것이다.



▲ 다랑쉬 가는 길에 만난 동북마을 팽나무.

듯 하다. 세월의 무게와 질감을 흠뻑 지녔음직한 이 팽나무는 좌우 대칭형으로 수북하게 자라지 못하고 남쪽을 향해 쓰러지듯 힘겨운 성장을 하고 있다. 북쪽으로 자라던 가지는 위로 조금 상승하다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한 듯 그 투혼을 꺾어버렸다.

북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모질고 험한 바람에 곧게 뻗어나갈 수 없었던 나뭇가지들, 뒤틀리고 꼬여 곱추처럼 우그러진 밀둥, 마디마디 박힌 웅이들…… 그러면서도 윗부분 잔가지들은 자신의 강한 생명력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외세의 침탈, 가혹한 시련, 끈질긴 저항, 봉기와 좌절, 그리고 적응과 조화를 이루어 내면서 살아온 우리 섬사람들의 복합적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자화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1932년 해녀들의 항일투쟁이 동촌 마을인 구좌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어찌보면 척박한 자연환경과도 무관치는 않을 것이다. 동촌 마을을 지날 때마다 마주하는 이 팽나무를 보며 이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구좌읍의 상징 다랑쉬 오름

동북리 팽나무를 뒤로 하고 동쪽으로 계속 차를 몰다가 중산간으로 시선을 옮기면 그곳에는 이 모진 땅을 한 눈에 아우르는 오름이 있으니, 이것이 곧 다랑쉬 오름²⁾이다. 평대나 세화에서 산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오름 앞에 다랑쉬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찾아 갈 때는 항상 이 오름을 이정표 삼는 것이 순리이다.

마을이 있기 오래 전부터 이 오름이 있었고, 그런만큼 마을의 이름도 오름에서 유래한 것이기에 오름부터 오르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뿐만 아니라 마을과 동굴을 순례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지형을 조망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 오름에 올라 보라고 권하고 싶다.

비자림의 돌오름과 용눈이 오름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이 다랑쉬 오름은 사면이 모두 가파른 경사를 이룬 원추형의 풀밭 오름이다. 풀밭 오름이기는 하지만 오름 아래쪽에는 조림한 나무들과 잡목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정상을 향할 수는 없다. 등산로는 세 군데 있는데, 산 아래 흙길을 따라가다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을 찾으면 된다.

오름 자체의 위용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게 하지만, 정상에 올라서서 굽부리 안을 들여다 보면 그 또한 경이롭다. 한 때는 불덩이를 토해냈던 저 깊은 아가리 속으로 끝없이 빨려들어갈 것만 같은 묘한 심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분화구의 깊이에 있어 교래리의 산굼부리가 132미터, 백록담이 115미터인데, 바로 이 다랑쉬 오름이 백록담과 같은 깊이를 가진다. 과연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울만한 자태이다.

다랑쉬 오름의 동쪽으로는 이 오름과 닮은꼴로 낮고 자그마한 원형 분

2) 다랑쉬오름(月郎峰)의 소재지는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이다.

표고 : 382.4m, 비고 : 227m, 둘레 : 3391m, 저경 : 1013m.

화구를 가진 아끈다랑쉬³⁾가 자리하고 있다. ‘아끈’은 ‘작은’이라는 뜻이다. 산정부에 둥그렇게 패여 있는 원형 분화구(둘레 : 약 6백미터)는 소형 경기장을 연상케 한다. 굽부리 한켠에 외롭게 누워있는 무덤 하나가 작은 파격을 가하며 풀밭의 단조로움을 보완한다.

▲ ‘다랑쉬’ 그 이름의 유래

다랑쉬(ㄷ랑쉬, 달랑쉬)라는 이름의 유래는 대략 3가지로 추정된다.⁴⁾ 산봉우리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게 보인다 하여 다랑쉬라 부르며, 특히 송당 마을에서 바라볼 때 굽부리에서 쟁반같은 보름달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가히 가관이다 하여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김인호 박사나 현평효 박사의 언어학적 해석은 이와 전혀 다르다. ‘달, ㄷ’은 ‘높다’ 또는 ‘산’을 뜻하는 고구려어 ‘達’과 같은 계열의 말이며, ‘쉬’는 봉(峰)의 뜻을 가진 ‘수리’에서 변형된 것으로 결국 ‘달수리’라는 원형이 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박용후의 설명을 따르자면, ‘다랑쉬’의 ‘다랑’은 작은 논이란 뜻의 ‘다랑이’에서, 또 ‘쉬’는 무른 진흙이 있는 ‘수렁’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다랑쉬는 ‘작은 진흙 논’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이름의 한자 표기인 月郎峰(월랑봉)을 ‘다랑쉬 오름’의 이두문식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첫번째 해석에 애정을 갖는다. 그 이름 속에 달의 이미지를 고집하고 싶은 건, 이 오름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지쳐 슬픔이 되어버린 다랑쉬 굴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토벌대가

3) 아끈다랑쉬(小月郎峰)의 소재지는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593-1, 2593-2번지

표고 : 198m, 비고 : 58m, 둘레 : 1454m, 저경 : 487m.

4) ‘다랑쉬’ 어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의 책을 인용하였다.

김종철, 『오름 나그네 1』, 도서출판 높은오름, 1995, 37쪽.

제주도, 『제주의 오름』, 1997, 292쪽.

박용후,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제주문화, 1992, 163쪽.

피워 놓은 연기에 질식해 돌틈과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바둥거리다가 귀와 코로 피를 흘리며 죽어간 11명의 설운 목숨, 뼈 한줌이라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미친 파도 속에 흩뿌려져야만 했던 원통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달이 전해주는 처연한 분위기와 하나되어 가슴 아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 오름과 역사

1720년 숙종 임금이 돌아가자 성산읍 고성 사람 홍달한(洪達漢)이 이 꼭대기에 올라와 단을 설치하고 분향하며 국왕의 승하하심을 통곡으로 애도했다고 한다.⁵⁾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초하루와 보름에는 이곳에 올라와 수평선 넘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목을 놓아 슬피 울었다고 한다. 아마 임금 계신 북쪽을 바라보기엔 우뚝한 이 오름이 적격이었을 것이다.

기록이나 증언을 종합해 보아도 일제 강점기에는 별다른 특징을 찾아 보기 어렵다. 제주도 주요 오름에는 일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건만, 이만한 위용을 가진 다랑쉬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일제 말기 제주도를 대미 결전의 최후 보루로 설정해서 7만 병력을 배치했던 '결 7호 작전'에서도 동부 중산간 지대는 포기되었고, 한라산 중심의 유격전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 섬에서 옥쇄를 결정했던 그들은 섬 전체의 지형으로 보아 이 지역은 방어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사실 고려 시대 몽고 점령기 이후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 지역은 광활한 목장지였기 때문에 유격전을 벌이기에는 적합치 않은 지형이다.

1948년 4월 3일, 도내의 여러 오름과 마찬가지로 다랑쉬에서도 햇불이 오른다. 햇불이 오르기 1년 전부터 산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날 이후부터는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잦아졌다. 그리하여 다랑쉬 오름 주변은 구좌면 면당부의 여러 하위조직중 하나의 근거지가 되

5) 김종철, 앞의 책, 36쪽.

었다. 구좌 제1지구(세화, 하도, 종달)의 근거지가 바로 이곳이었다.⁶⁾ 아마도 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토벌대의 이동 상황을 한 눈에 살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격대 면당부의 무장상태를 보면, 사용마저 불가능한 99식 소총 1정과 다랑쉬 굴 희생자로 처음에는 잘못 알려졌던 오달용⁷⁾이 소지한 일본도(日本刀) 하나가 고작이었다고 한다.⁸⁾

외세처럼 밀려오는 거센 바닷바람에 무모한 줄 알면서도 몸을 내어맡겨 저항하는 동촌 마을 팽나무의 우직함과 죽음의 막다른 궁지에서 달리 선택의 방도가 없었던 ‘강요된 저항’ 4·3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무자년 흑독했던 그 겨울 내내 말없이 우뚝한 저 다랑쉬 오름은 이 난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1948년 음력 11월 3일, 유격대에 의한 세화리 습격이 있었다. 소개령과 함께 시작된 대토벌로 어려워진 산사람들이 지서가 있는 세화리를 기습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날의 공격은 정작 악질적인 서북청년단원이나 경찰지서를 습격한 것이 아니라, 양민들을 학살하고 민가를 방화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당시 할머니와 사촌 동생을 잃은 문도씨(세화리 거주, 1936년생 — 당시 13세)는 유격대에 의한 세화리 습격 사건 이후에 다랑쉬 방면에서 전개되었던 군경의 토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세화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 등 토벌대 백여 명이 이튿날인 4일, 유격대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다랑쉬 오름 주변에 대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군인들을 따라 다랑쉬쪽으로 가는데, 다랑쉬봉 정상에 붉은 기가 좌우로 몇 번 휘저어지더니, 이윽고 이끈다랑쉬에서도 깃발이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군인들이 오름으로 접근하였지만, 처음에는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6) 당시 입산자였던 종달리 채○○의 1992년 증언.

7) 앞의 증언자 채○○에 따르면 오달용은 상도리 출신으로 구좌 민예청 단장이었다고 한다.

8) 앞의 채○○의 증언.

그러다가 다랑쉬 오름에 올라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이 때 소(牛)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가가서 보니, 어제밤 습격 때 놈들이 뺏아간 세화리 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뒤지다가 다랑쉬 큰 굴을 발견하고 토벌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이 다랑쉬 오름은 산사람들이 의탁해 왔을 때도 자신의 넉넉한 품으로 그들을 맞아주었고, 또 역으로 토벌대에게도 좋은 전망터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할 뿐이었다. 초원의 야생은 인간세계의 혼돈을 그저 무관심하게 흘려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상의 번잡함을 잊으려 오름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몇몇 뜻있는 사회단체에 의해 새해 첫 날 해맞이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다. 일출봉의 그 소란스러움보다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또 산 아래 다랑쉬 동굴을 기억하며 마음 다짐들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오름은 또 무엇을 지켜볼까? 혹시나 골프장 건설의 중기계를 지켜보게 되지는 않을까? 그 들들들 피말리는 소리에 아파하지는 않을까? 오름 앞에 있었던 마을을 조사하던 중 군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서울의 모 여자대학을 포함한 외지의 토지 투기꾼들이 이 일대의 소유권자들이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다가오는 씁쓸함은 어찌할 수 없었다.

뜨내기들의 마을

배산임수, 따뜻한 햇빛이 드는 양지 바른 언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양택의 자리잡기이다. 그러나 제주의 집자리는 육지의 그것과 조금은 다르다. 육지의 경우 비가 올 때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자리가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그러나 제주는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라 침수 걱정은 없었고, 오히려 그보다는 거센 바람을 피해 바깥 옆드리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과거 제주의 양택은 대부분 움팡진 곳으로 내려가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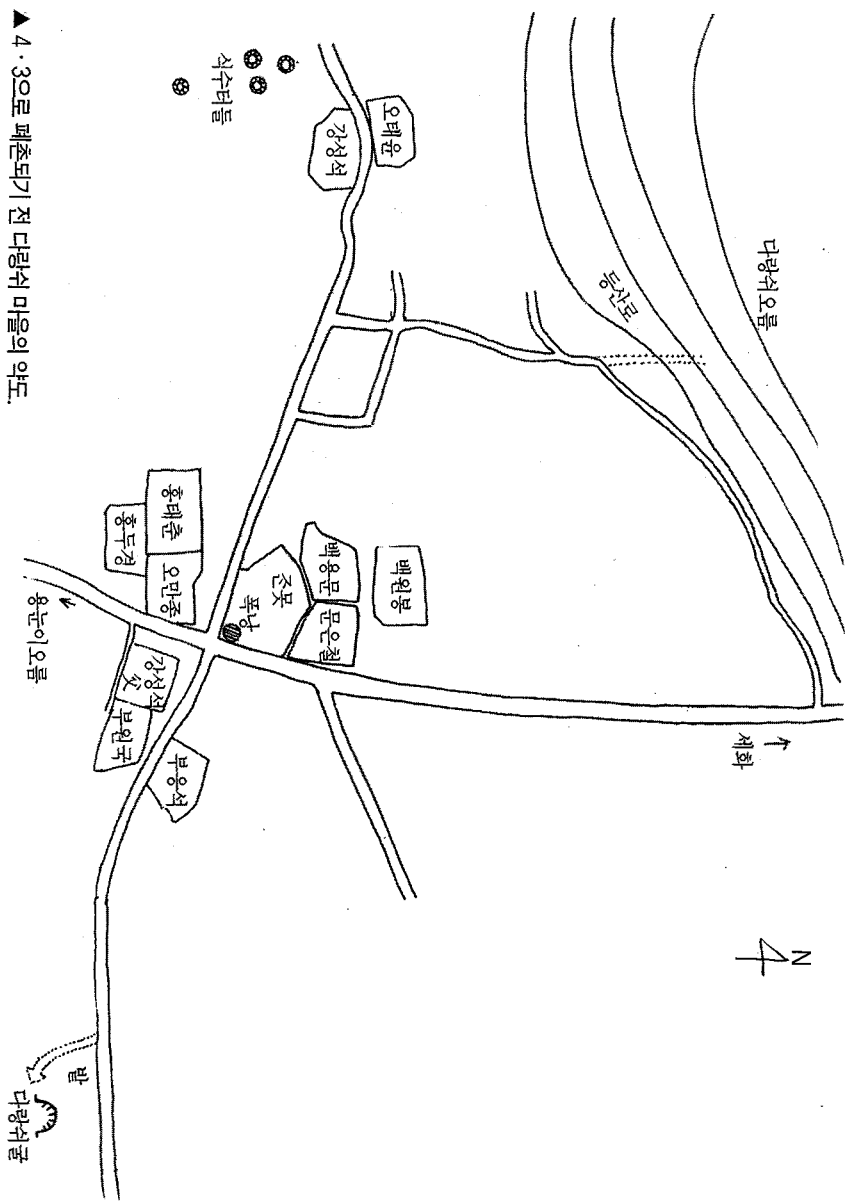
또 안뒤(안채 뒷 공간)에는 대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생활 용구를 만들기 위해 심어놓은 것만은 아니다. 북쪽 허한 공간을 보완하려는 풍수지리적 이유에서 그랬다. 이것은 실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바람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집자리 잡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다랑쉬 마을. 이 마을에 불어오는 찬 바람을 막아준 건 다랑쉬 오름과 아끈다랑쉬 오름이다. 다랑쉬 오름을 등지고 따뜻한 남쪽 햇빛을 받아 안으며 자리하고 있던 이 마을은 해안의 세화리에서 약 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해발 170미터의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 버려 사람도 집도 없이 황량함만 감도는 잃어버린 마을이다.

제주의 어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중심에는 폭낭(팽나무)이 있다. 그리고 언뜻 폐촌임을 알려주는 대숲이 10여 군데에 있어 바람과 함께 서로가 몸을 비비며 울썸년스런 소리만을 낸다. 말라버린 쇠물먹이 못(증언자들은 '조못'이라 불렀다), 식수로 쓰기 위해 빗물을 받아 두던 식수터 4곳,⁹⁾ 그리고 곳곳에 깨어진 사기 그릇 파편만이 여기가 한 때는 사람이 살던 마을이었음을 애써 이야기해 줄 뿐이다.

이 마을의 처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이곳에 한 때 거주했던 사람들 중 하도리 오만중(1934년 생)씨는 기껏해야 왜정시대가 아니겠냐고 한다. 변변한 농사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곳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세화리 오태윤(1939년 생)씨는 약

9) 확인한 4곳 중 하나는 지금도 물이 고여 있고, 위로는 나무가 우거져 있다. 세화리 오태윤의 말에 따르면 물이 제법 시원했었다고 한다. 한편 상도리 부응석은 이 마을에 7개의 식수터가 있었다고 했다.



▲ 4. 3으로 폐촌되기 전 다랑쉬 마을의 지도.

2백년 전 쫓으로 올려 잡는다. 마을 팽나무의 모습에서 추측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목장지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1840~50년 경까지는 개간이 금지(제주대 사학과 김동전 교수의 조언)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올려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150년을 넘어 설 것 같지는 않다.¹⁰⁾

주민 구성의 면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뜨내기였던 점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설촌의 시점이 대략 19세기 후반기가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해방을 전후한 1940년대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백씨(백원봉, 그의 아들 백용문, 백용수), 부씨(부응석), 부씨(부봉국, 부원국, 부정국 형제), 강씨(강성석), 오씨(오태식, 오태운, 오태문), 오씨(오만중), 김씨(김창식, 김창순), 홍씨(홍태춘), 홍씨(홍두경) 가족 등으로 대략 9~12가구에 40여 명 정도의 인구로 추정된다.

그나마 살림이 조금 넉넉했던 백씨 집안(백조방장¹¹⁾의 아들과 손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뜨내기 삶이었다. 이들은 송당 장기동 출신(오만중, 오태운, 홍태춘, 홍두경), 상도리 출신(부응석씨 집안은 상도, 장기동, 다량쉬, 상도 순으로 계속 이주했다), 세화 출신(부정국), 교래리 출신(김창식)으로 실제 이 마을에 거주한 햇수가 길어야 10년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송당으로, 세화로, 하도로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한결같이 “아! 그야 그만큼 못살았으니까 그렇지”라는 대답이 공통적이었다.

농사지를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중산간 이 지역으로 옮겨 와 집도 짓고 피, 산디, 메밀, 조 등을 일구어 먹었

10) 물론 중산간 지대라고 해서 설촌이 늦거나, 빈농들만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1917년 일주도로가 관통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입해촌락에 주로 대다수의 빈농과 어민들이 거주하였고, 3군(郡)을 연결하는 내륙 관도(官道) 연변에는 유림 계급이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대다수 해변마을 빈농과 어민들은 이들 유림 계급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11) 조방장(助防將)은 조선시대 각 진(鎭)의 책임자.

다. 그러다가 토지 주인¹²⁾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지대를 지불하였다. 미개간의 토지의 경우는 3년간 무상으로 경작한 후 4년째부터 밭삔을 내었다.¹³⁾ 그나마 장기동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조가지도 이곳에서는 경작할 수 있었다. 장기동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안과 가까운 저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¹⁴⁾

그들 중 일부는 남의 소나 말을 맡아 관리해주는 댓가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는 테우리들도 있었다. 테우리 수입이 중산간 농사보다 더 좋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테우리를 천시했기 때문에 결혼 후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결혼은 주로 다른 마을(송당, 세화, 하도, 종달, 평대) 사람들과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의 배필은 역시 송당이나 해안 마을에서도 불우한 처지의 집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누가 우리같이 어진(없는) 사람들에게 딸을 주겠나, 특히 말(馬)이나 관리하는 테우리에게는 시집오기를 꺼려 했지.

동촌 마을의 척박함, 그 가난 속에서도 다시 또 밀려나 중산간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던 이들의 삶, 나는 다시 동북 마을에서 만났던 그 팽나무의 몽그라진 옹이 마디를 떠올린다. 다랑쉬의 아름다운 이름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고통 가득한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백조방장의 후손집은 경우가 달랐다. 토지도 있었고, 한 때는

12) 당시 이 지역 토지의 대부분은 세화 등 해안 마을 부유한 집안의 소유지이거나, 高梁夫三姓(洞財團)의 소유지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일부만이 세화 김한병 등 해안 마을 사람의 소유지이며, 대부분은 서울, 부산, 일본 등 외지 사람의 소유지이다. 고허부삼성사재단 소유지는 대부분 1970년에 서울 사람 정원성 등에게 매각된다.

13) 세화리 오태윤의 증언.

14) 하도리 오만중의 증언.

10여 마리의 우마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만큼 이 집안은 마을의 터주대감 격으로 장기간 거주한 유일한 집이었다. 어째서 백씨 집안만이 이질성을 가지는가?

폭낭이 서있고, 또 그 곁에 말방아간이 있었다는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을 형성 당시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불박이 공동체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백씨 집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떠났고, 주변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방치된 토지를 찾아 기웃거렸을 가능성이 크다. 말방아간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 방아를 중심으로 하는 집(계)이 당시(194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고려한다면 이런 추측도 무리는 아닌 듯 하다.

또 예전에 이 지역을 '죽은물 곳왓'¹⁵⁾이라 불렀으며, 이후에 이곳에 불을 놓아 화전을 시작했다는 증언을 통해서도, 설촌 당시에는 비교적 틀이 잡힌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리라 추정해 본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과거를 증언해 줄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단지 폐촌되기 전 이들이 기억하는 1940년대 다랑쉬 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은 그러했다.

▲ 4·3, 그리고 사라짐

광기였다. 이 섬의 무자년(1948) 겨울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인육을 뜯어먹은 미친 개가 들판을 휘저어 다니듯 그들은 중산간 일대를 빗질하기 시작했다. 시비곡직을 가리는 인간의 이성엔 절대적 폭력과 광기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거룩한 종교도 인간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어주질 못했다. 야생의 동물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한 인간성만이 섬 전체를 덮쳐 버렸다.

그해 음력 10월 보름 경부터 섬 전체 중산간 부락에 소개령이 내려진

15) 곳 : 잡목과 잡석이 뒤섞인 숲.

왓 : 밭(田)

다. 주민들과 유격대를 분리시켜 그들을 완전히 고사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에 중산간 마을은 잠정적 적성 지역이 되었고, 이곳의 주민들은 폭도 혐의자가 되기 쉬웠다. 소개령과 함께 곧 이어 들이닥친 토벌은 정당한 절차없이 무자비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토벌대에 쫓겨 다니느라 지쳐버린 유격대들은 ‘혁명의 대의’보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 우선시되었다.

이 마을에도 이 무렵에 소개령이 내려진다. 다행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소개령 직후에 곧바로 해안 마을로 내려온 까닭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이루어진 이 조치는 하루 아침에 그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해 버렸다. 어느날 아침 지서에서 우마차를 끌고와서 간단한 생활 도구만을 싣게 하고는 곧바로 가옥을 파괴하기 시작했다.¹⁶⁾

가난 중의 가난으로 이곳까지 떠밀려 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뿌리를 내리며 살아보자고 어렵게 가꾸어온 보금자리였다.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파종도 하고 겹질(김)도 매면서 거친 곡물이나마 거두어 보려고 흘린 땀의 결실이었다. 남의 집 고용 태우리일망정 소·말을 몰고 나가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일 때면 늘어가는 가축을 상상하며 흐뭇해지곤 하던 그들이었다. 물론 인명 피해가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순 있었으나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다.

소개 당시에는 모두 다 지서가 있는 세화리도 내려가야만 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서 각기 연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세화보다는 그 주변의 하도나 평대가 집을 구하기 쉬웠다. 지금까지 가난뱅이 떠돌이로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해변 마을에서 다시 시작된 새로운 경험은 여태껏 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비참하고 서글픈 삶이었다. 넉넉한 섬 사람들의 인심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살만한 처지에서 가능한 것이다.

16) 이 마을이 소개되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증언자는 만날 수 없었다.

평소에도 해변 마을 사람들은 중산간 사람들을 ‘웃드리 맨주기’라고 천대하곤 했었다. 테우리의 경우는 더욱 무시당했다. 게다가 유격대에 의해 세화리가 습격(음력 1948. 11. 3)당하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인 이들 세화나 하도 사람들은 중산간 주민들을 더욱 냉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려온 다랑쉬 마을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더욱 심한 것이었다. 집은 주로 남의 집 방 한 칸이나 쇠막(외양간)을 빌렸다. 그 춥던 겨울 쇠막에서의 삶은 말로써 표현될 것이 아니었다. 외양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예수 탄생 이야기가 평화의 이미지를 전해 주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며 현실적인 서글픈 삶이었다.

하도리 오만중은 소개 당시 소 2마리를 끌고 내려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그냥 산으로 놓아 버렸다. 혹시나 훗날 세상이 좋아지면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소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가 되어 마치 남의 집 머슴처럼 아무 일이나 닦치는대로 하며 근근이 살아오게 된다. 소나 돼지도 먹기를 꺼려하는 곡물 껍질과 해초마저도 넉넉히 먹어보지 못하고 지내던 시절이었다.

다른 방식으로 살 길을 찾는 이들도 있었다.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것이었다. 생계 수단은 없고,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자칫 산쪽 사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 길을 택하게 된다. 부봉국 형제들이 그런 경우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그냥 육지부에 정착해 버린다.

▲ 휘파람 소리 좋았던 난장이 아저씨

중산간 마을이 소개되고 해안 마을에 성벽¹⁷⁾이 쌓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산간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테우리들이었다. 위험한 일

17) 소개령 이후 유격대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토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가며 축성을 하였다. 세화의 경우, 이러한 ‘전락촌’ 건설은 1948년 겨울부터 다음해 여름까지 진행되었고, 그 성담이 둘러쳐진 범위는 남쪽 합전동을 포함하며 바닷가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였다.

이었으나, 생계의 절박함과 '죄가 없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나' 하는 순박함이 이들을 폐허 속의 다랑쉬 마을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쇠먹이는 물이 좋았기 때문이다. 마을 중심 폭낭 아래가 바로 그 물이다. 이곳 사람들은 '즌뫓'이라 부른다.

여기에 모이는 테우리들 중에 힘 좋고 말 모는 솜씨 으뜸이던 난장이 아저씨가 있었다. 원래 남제주군 풀개동산(태흥리) 출신으로 이름은 홍무경인데, 당시에는 세화리 김병익의 집에 고용된 테우리였다. 그가 다랑쉬 오름에서 우마를 불러 모으는 휘파람을 불어대면 세화 조금 못 미친 곳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던 동료 테우리들뿐 아니라 그의 우마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 뗏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슬슬 모여들곤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난장이 아저씨에게 일이 터졌다.

▲ 폭 낭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모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모임이 반복되면서 모이는 장소도 고정되어 간다. 그곳에서 공동체의 규칙이 만들어 지고, 또 집행되기도 한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그것이며, 해녀들의 '불턱'도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임의 장소이다. 그런데 모임의 장소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관제(官製)적 냄새가 심해진다. 과거 군사정권기에 화면발을 많이 받던 '여의도 광장'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와 달리 '관덕정 앞마당' 정도라면 내실있는 집회를 가질 만한 적당한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지던 장소는 바로 마을 중심의 폭낭이었다. 지금은 시골 마을 노인들만이 간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하여도 생이충(새충) 가진 개구장이 어린이들에게는 없었던 안될 놀이터이기도 했다. 마을 어른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규칙도 형성되고, 서로간에 인정이 오가며 삶이



▲ 난장이 아저씨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다랑쉬 마을 팽나무.

나누어 지던 곳, 폭낭 아래 쉽터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위압감만 조성하는 여의도 광장같은 관제적 경박함도 아니며, 역사의 거친 물줄기와 함께 했던 관덕정 마당과도 또 다른, 그저 마음 착한 동네 사람들의 얼굴만이 떠오르는 그런 다정한 '광장' 이 바로 폭낭 아래이다.

다랑쉬 마을의 폭낭도 그랬을 것이다. 사람이 모이고 넉넉한 마음들이 오가던 곳, 그러나 4·3의 광기는 이런 아름다운 기억마저도 피냄새로 찢어 발긴다.

소개령 이후지만 테우리들은 산으로 올랐다. 어느 때처럼 그 소리 좋던 난장이 아저씨가 먼저 이 폭낭결 '존못'에 도착했고, 그의 우마는 물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나무에 붙어있는 종이 조각을 본다. 교육이라고는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는, 이 종이를 쳐다보다 이내 무관심해진다.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담배를 만다. 종이에 침을 바르고 조심조심 굴리며……. 담배를 피워 물고 무심히 나무 아래로 시선을 옮겼더니, 저건 또 무엇인가? 폭낭에 붙어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뭉텅이로 놓여있질 않은가?

‘그래, 오늘은 운이 참 좋구나, 요즘 같아선 담배말이 종이도 구하기 어려운데, 이게 웬 황재인가.’ 그는 가슴 앞 단추를 풀어 제끼고 여기 저기 ‘비라’ 몽치들을 쑤셔넣기 시작한다.

곧 이어 들이닥친 토벌대는 중산간에서 얼쩡거리는 ‘폭도 용의자’를 체포한다. 몸을 수색한 결과 다량의 비라가 발견된다. 이젠 영락없이 ‘산 폭도’로 확정되어 버린다. 개머리판이 날아간다. 가슴팍에도, 얼굴에도 …… 코와 입으로 시뻘건 피가 부각부각거린다. 그리고서 머리통이 터지더니 허연 물체가 흐른다.

바로 이 폭낭 아래서 ……¹⁸⁾

▲ 복귀, 또 다시 사라짐

사태가 진정되었다. 한국 전쟁도 모두 끝났다. 섬 사람 모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흔만을 남기고.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모질다. 볼 것, 안볼 것 다 겪고도 다시 일상을 일구어 나간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1949년 봄부터 중산간 마을로의 복귀가 조금씩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량취 마을의 경우에는 1950년대 중반기가 되어서야 봄이 스멀스멀 찾아왔다.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마치 따뜻한 봄날 풍경화처럼 사람들이 돌아

18) 난장이 아저씨 이야기는 세화리 문은철의 증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문씨는 이 사건을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문씨의 집안은 세화리에서 살았는데 다량취 마을 서남쪽(세화리 산 30번지 : 6만 3천 평)에 작지 않은 목장과 80마리 이상의 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개령 이후 사태가 험악해지자 그 집안 고용 태우리가 그만두게 되었고, 당시 15세였던 문씨가 대신 우마를 몰고 다량취 마을 준뫼를 향하게 된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난장이 아저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이내 숨을 거두었고, 다른 태우리들(부정국, 부원국 등)은 한 쪽 구석에 포박당하여 엎드려 있었다. 곧 문씨도 체포되어 약 1개월 간의 수감 생활을 겪는다. 석방 이후에도 그는 줄곧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군에 자원 입대하게 된다. 문씨는 필자에게 폭낭 아래 현장을 직접 안내해 주면서 “그 난쟁이가 무신 죄라, 그저 글모른 게 죄지”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날 뜨내기였던 이들이 굳이 다랑쉬 마을로 돌아갈 이유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들 마을이라고 돌아간 사람들은 오태운 등 3 가구에 불과했다. 해안 마을에서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한 이들은 생계의 위협 때문에 다시금 방치된 이 마을을 찾아왔던 것이다.

소개당히는 그 급한 경황 중에 적지 않은 돈을 정지(부엌) 바닥에 묻고 내려왔던 백씨 집안은 그 돈마저 건사하지 못하자 이내 실망하고 제주시로, 육지부로 다른 삶을 찾아 떠난다.

하지만 이전에 이 마을에 살지 않았던 또 다른 뜨내기들이 다랑쉬 마을로 찾아들면서 다시금 가구 수가 10호 가량 형성되었다. 1962년에는 4·3 이재민 2차 복귀 사업이 추진되었다.¹⁹⁾ 이 사업은 25년 상환으로 가구 당 30만원 씩 용자가 주어지면서 진행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이 자금을 용자받아 새롭게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 때 유행한 집이 도당집(양철지붕 집)이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이들은 다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중산간 생활의 불편함이 커진 탓이다.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²⁰⁾ 그래서 송당, 세화, 상도, 하도 등을 향해 이제 다랑쉬 마을과는 영원한 이별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 최후의 거주자 이서방

다랑쉬 마을의 최후를 지켜 본 것은 이서방의 가족이다. 이 시기가 대략 1960년대 후반이다. 다 떠난 그 자리에 왜 끝까지 남아 있었는가?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이서방에 대한 욕부터 시작했다.

19) 제주도, 『도제 50년 제주실록』, 1997, 234쪽.

20) 세화리 백문진, 오태운의 증언.

“그 서청(서북청년단) 놈, 몽니(심술)도 보통 몽니가 아니라.”

“용심나문(화나면) 모시(가축)들도 몬(모두) 두드려 붙고.”

“우리 집 벌언(임대해서) 살아신디(살았는데) 집 비우렌(비우라고) 함부로 말도 못해서.”

이서방은 해방 정국에 북에서 온 사람이었고, 한 때는 경찰관으로 근무했었다. 정부에서도 토벌의 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으나,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힌 후에는 이런 무법자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직에서 쫓겨난 그는 더욱 행패를 부리며 살다가, 할 수 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도 그의 패악질은 심했다. 농사는 전혀 짓지 않고 닭을 몇 마리 키우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가 어느날 술 취한 몸으로 길을 걷다가 사고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그의 남은 가족은 해안 마을로 이주한다. 이것이 다랑쉬 마을의 마지막이다.

소설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다. 최후의 거주자가 서청 출신이라 꽤 한 거부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다랑쉬 마을의 참 모습이 아닐까? 인간 세계에서 떠밀리고 밀리어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탁한 곳, 다랑쉬 오름의 넉넉한 품이 그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다시 찾은 다랑쉬 굴

닫혀 있다. 아니 어디가 입구인지조차 분간도 할 수 없게 망가져 있다. 6년 전(199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랑쉬 동굴²¹⁾은 지금, 사람들의

21) 6년 전(1992년) 다랑쉬 마을 곁 다랑쉬 동굴에서 4·3 당시 토벌대에게 희생당했던 11구의 시신이 발굴되었다. 이 발굴은 4·3을 살아있는 현실로 증명했던 사건이었기에 그 파장이 매우 컸다. 다랑쉬 굴 학살 사건과 이 발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이 글의 말미에 다랑쉬 굴 사건 관련 일지를 실는다.



▲ 다랑쉬 굴 입구의 어제와 오늘.

기억 속에서 빨리 사라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듯하다.

동굴은 다랑쉬 마을 중심의 폭낭에서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정부에서는 다랑쉬 굴 발굴 사건 이후 중장비를 동원하여 서둘러 그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대부분 그 주변만을 헤매다 쓸쓸하게 발길을 돌리곤 한다. 폐쇄 초기에는 구좌읍장과 구좌파출소장 명의로 된 ‘허가없이 무단 출입을 금함. 1992. 4’이라는 팻말과 겹겹이 두른 철조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 없다. 오히려 이 팻말이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이정표가 되었을까? 망각을 강요하는 세력은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렸다. 이제라도 순례자들을 위해 간단한 안내문이라도 세워 놓았으면 좋겠다.

1992년 4월 1일, 현장 검증 및 언론 공동 취재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 제민일보 4·3 특별 취재반은 88년 경부터 구좌읍 일대에 대한 광범위한 취재로 이 동굴 속의 희생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또 제주 4·3 연구소도 세화리 문모씨의 길 안내로 발굴 1년 전부터 현장을 직

접 확인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좌읍 주민들 사이에는 다량쉬 굴 학살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또 실제 그곳에 있던 시신 중 일부는 사전에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어 굴 밖 어디엔가 안장되어 있었다.

4·3의 모든 비극적 사건이 그렇듯이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쉬쉬’ 했던 것 뿐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어 ‘발견’, ‘발굴’ 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쉬굴 발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말로만 듣던 4·3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희생자 중 어린이와 부녀자가 끼어 있던 점이나, 발견된 유품들이 하나같이 무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용구였다는 사실은 ‘전과 올리기’에 급급했던 당시 토벌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 해 겨울, 제주 주둔 9연대는 여순사건을 진압한 대전 2연대와 교체하기로(1948. 12. 29)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나서는 군사작전에서 2연대에 못지 않은 ‘업적’을 세우고자 집단광기의 대학살을 자행한다. 당시 다량쉬 참사를 만들어 냈던 함덕 주둔 9연대 2대대의 12월 18일(음력 11월 18일) 활동 상황을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제주를 떠나버린 제 9 연대 제 2 대대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군사 작전에 서 민간인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12월 18일 130명을 사살하고 50명을 체포했으며, 소총 1정, 칼 40자루, 창 32자루를 노획했다. (1948년 12월 24일자 미 24군단 정보보고서)²²⁾

130여 명 사살에 소총 1정 노획이라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다량쉬 동굴 사건같은 양민학살이 대거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22)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428쪽에서 재인용.



◀강요된 확장과 산골(散骨)로
오열하는 유족

이다. “제2연대의 성과에 필적하는 훌륭한 토벌업적을 세우려는 욕망 때문”이라는 미국 G-2보고서²³⁾의 한 구절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결국 미국의 이 문건은 토벌대의 작전이 ‘전과 올리기’ 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발굴의 현실적 의미가 이렇게 자명했기에, 그들은 서둘러 굴을 봉쇄하고 유골들을 바닷 속에 날려 망각을 강요했던 것이다.

▲ 장례식 — 역사 앞에 지은 죄

범도민적 진혼이 요구되었다. 양식있는 도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도의원 역시 처음에는 양지바른 언덕에 공동 분묘하는 ‘도민장’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레 사태는 우려하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유

23) G-2 보고서의 기록 확인은 제민일보 4·3 취재반의 도움을 얻어 이루어졌다.

죽들 중 직계 가족들의 입장은 일반 여론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의 유지인 먼 친척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너무도 신속하게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지는 파행을 겪는다. 화장을 주장했던 이 유지는 철저하게 관변적 입장을 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마치 한국 전쟁기에 제주도민들이 투철한(?) 반공전사로 앞장섰던 것과 유사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지역 유지의 역할보다 근원적으로 침묵과 망각을 종용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

1992년 5월 15일, 유족들은 오열했다. 화장한 뺏가루의 십분의 일만이 라도 주면 양지 바른 곳에 묻겠노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그들 앞에 가로 놓인 장벽은 불가항력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약 그 굴 속의 희생자가 군경이었다면 과연 그처럼 꺼내자마자 재를 만들어 파도에 흩어지게 했을 것인가. 국화꽃과 태극기로 장식한 제단을 만들고, 주악대가 구슬픈 진혼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고위층들이 분향하고, 그 향내 번지는 장엄한 장례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런 뉘그러만 늘어 놓는다고 우리들은 할 일을 다한 것일까? 그 분들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은 정녕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인가? 이 장례식은 분명 역사 앞에 큰 죄로 남을 것이다.

▲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1 — 남은 가족들

유족들은 알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동굴 속에 누가 누워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건 정확하게 음력 11월 17일(사망 전날)이 되면 제사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발굴 이전에 시신을 수습하여 남모르게 장례를 지내기도 했다.²⁴⁾

24) 처음에 다량쉬 굴 유해의 주인공으로 잘못 알려졌던 박순녀(29세, 여, 하도리)와 그의 아들(7세, 남)은 시누이에 의해 초기에 수습되어졌으므로, 발굴 당시(1992년)에는 그곳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제민일보 4·3 취재반이 최근 보도(1997. 4. 11)한 하도리 손성민(현재 88세 — 알려지지 않았던 희생자 손성언의 형)에 의하면, 사건 당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경수(51세), 손성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11구 시신의 유족들은 왜 여태까지 방치해 두었을까? 4·3이 일어나고 44주년이 되는 1992년까지 말이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물론 당시에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시신을 수습했다가는 입산자 가족으로 같이 처형당하기 때문이다. 지척에 누워 있는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다량수 오름만 원망스레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던 것이다. 죄스런 마음 속으로만 삭이며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가 사태가 끝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금방이라도 달려갈 것 같던 심정은 다시 또 주춤거린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테러에 시달린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저항의지도, 삶의 근본도 상실해 버린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극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그저 모든 의욕을 잃고 체념해 버린다. 시신 수습의 당위성과 그렇게 하지 못한 죄스런 마음을 눌러버린 무기력증, 이것이 집단 광기의 학살을 경험한 유족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무기력 속에 그저 하루 하루를 살아온 삶, 그분들의 말대로 “그자, 사니까 살아진 거쥬”라는 표현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들은 이 모든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실로 인정하고 살기엔 너무도 버거운 가위눌림이었을 테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잊고 싶었을 것이다.

(30세), 그의 아들 손만채(10세), 그리고 이흥규의 가족 5명 등 모두 8명이 굴 밖에서 사살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사실을 토벌에 참여했던 민보단원에게 듣고 사건 발생 후 6개월 쯤 지나 몰래 시신을 수습하러 현장에 갔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굴 밖 현장에는 이경수와 손성민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둘만을 수습하고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증언자 손성민은 극도의 피해의식 때문에 88년, 93년 두 차례의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97년에야 죽기 전에 밝힐 것이 있다고 이러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러고 보면 다량수 굴 학살 당시 희생자는 92년 발굴된 11구의 유골 뿐 아니라, 10명이 더 추가된 21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토벌 직후 시신을 정돈했던 체○○가 처음에 증언했던 약 20명 정도라는 것과는 일치한다. 그렇다면 발굴된 11구의 시신 외에 나머지 몇몇 시신은 1992년 발굴 이전에 이미 수습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때는 중남미의 정치 현실도 참으로 암담했었다. 1980년대 초까지도 납치와 고문, 집단학살과 암매장 등 숭한 인권유린이 횡행했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가 끝났을 때, 종종 영화 <킬링필드>의 장면과 유사한 현상들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곳 아르헨티나의 어느 보고서는 국민 전체의 1/3이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

가족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또 정확한 날짜에 제사를 치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온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 도민 모두가 이런 집단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2 — 또 하나의 다랑쉬 굴?

다랑쉬 사건에 대한 진실 접근은 크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사가 있은 뒤, 면당부의 지시로 시신을 가지런히 수습하고 번호를 매겼던 종달리 채모 씨, 그리고 토벌작전에 동행했던 구좌읍 민보단 간부 오지봉, 이 두 사람의 증언이 거의 일치하며 하나의 축을 이룬다. 반면에 4·3 연구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까지 길안내를 해줌으로써 굴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세화리 문모씨가 다른 축을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축이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다랑쉬 굴 사건은 앞의 두 사람의 증언을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비슷하기도 했고, 또 시신을 직접 정돈해 놓았던 채모씨의 증언과 굴 속의 상황이 너무도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이 학살은 1948년 12월 18일(음력 11월 18일) 함덕 주둔 9연대 2대대가 '전과 올리기 토벌'로 자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세화리 문모씨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12월 3일(음력 11월 3일), 유격대에 의한 세화리 습격이 있었다. 그 날 증언자 문씨의 가족 두 사람이 산사람들에 의해 희생된다. 다음 날 아침(음력 11월 4일) 성산읍에 주

둔하던 9연대가 배를 타고 세화항에 도착했고, 이어 곧바로 토벌에 들어간다. 당시 지휘관은 증언자 문씨의 사촌 형 문남수였다. 증언자 문씨는 자신의 가족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복수의 심정으로 사촌 형을 따라 토벌에 나선다. 당시 그는 13세였다. 그리고는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인용된 것처럼, 다랑쉬 오름의 ‘깃발’과 ‘끌고간 소’ 때문에 굴은 발각되었고, 곧이어 토벌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굴 입구에서 다이ना마이트를 터뜨리고 연기를 피우는 등의 이야기는 앞의 증언자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씨의 증언에 따르면, 굴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 군인들은 굴 속으로 들어갔고, 곧 이어 어느 시신의 목을 베어 들고 나오면서 “정권수²⁵⁾의 목이다.” 또 어느 여자 시신을 끌고 나오면서 “그년 미인은 미인이다. 잘난 년이다”라고 하던 현장을 그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 구의 시신이 더 나오는 것 같았는데 끔찍스러워서 눈을 돌려 버렸다고 한다. 물론 정권수가 이 때 죽은 것은 아니다. 본래 장수의 목은 여러 번 날아가기 마련이다. 장수의 명성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다.

문제는 앞의 두 사람의 증언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목을 베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 큰 차이점은 문씨가 자신이 목격한 굴은 1992년에 발견한 그 작은 굴이 아니라 ‘큰 굴’이라는 것이다. 1992년 당시 4·3 연구소의 보고 문건에도 ‘큰 굴’ 이야기가 나온다.

최초 굴발견 — 4·3 유적지 발굴 계획의 하나로…… 학살되었다는 증언

25) 앞의 증언자 종달리 체모씨에 따르면 정권수는 상도리 출신으로 유격대 구좌면 총책이었다고 한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는 35명의 무장대 전투원들과 함께 비자림에서 토벌대군과 격전, 대원들은 후퇴시키고 본인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56년 4월에 피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라리 연구원 편, 『제주민중항쟁Ⅰ』, 481쪽)

필자가 마을 조사를 다니면서 들은 정권수의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 상반된 것이었다. 토벌대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상도리 주민들은 정권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1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인재이며 인간적 품성 또한 훌륭했다고 칭찬했다. 반면 유격대에게 습격을 당했던 세화리의 경우는 그를 ‘꼭도 대장’이라 하며 적의를 표하는 이가 많았다.

이 나옴. 이에 따라 굴을 안내할 사람을 수소문한 결과 굴을 아는 사람(당시 토벌대를 따라갔던 사람 — 세화 문○○)이 나타남. 이에 따라 4·3 연구소 팀과 같이 굴을 찾으러 나감. 약 3 시간 정도 헤매다 굴을 찾았으나(큰 굴) 그 굴은 입구가 막혀 있었음. 주변의 작은 굴을 보니까 해골같은 것 보임.

그들의 증언을 비교하며 살펴 보자.

증언자	종달리 채○○ : 당시 산에서 활동. 사건 직후 면당부의 지시받고 굴속 시신 정리. 종달리 오지봉 : 당시 민보단 간부. 토벌 에 따라나섬	세화리 문○○ : 토벌에 따라나섬 동굴 발견, 길 안내
토벌 일자	1948년 12월 18일 (음력 11월 18일)	1948년 12월 4일 (음력 11월 4일)
토벌 부대	함덕 주둔 9연대 2대대	성산 주둔 9연대 (문남수 지휘)
발견 계기	변을 보고 난 후 돌 덮은 흔적	'잃어버린 소' 주변 수색
특 징	여러 기록 증언 일치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다랑쉬 사건	'큰굴' 이야기 '시신의 목' 이야기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인가?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착각하거나, 왜곡하는 것인가?

문씨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즉 1992년에 발굴한 것은 작은 굴이고, 또 다른 다랑쉬굴(큰 굴) 사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큰 굴은 중장비를 동원해야 그 입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번 발굴 사건 때처럼 떠들썩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단지 그 시신들을 안장하고 영혼을 달래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문씨의 안내를 받고 도착한 현장은 6년 전에 발굴한 동굴 바로 곁이었다. 토벌 당시에는 크게 드러나 있던 굴 입구가 이제는 돌무더기와

흙으로 덮혀 있어서 구별이 쉽지 않다고 했다. 사태 후 누군가가 막은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제민일보 4·3 취재반과 발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4·3 연구소 김동만 연구원의 견해는 이러하다. 두 개의 사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증언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란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며, 또 채씨의 증언이 현장의 상황과 너무도 일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민일보」 기획 취재 연재물 ‘4·3은 말한다’²⁶⁾를 검토해 보면, 문씨의 증언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 날(세화리가 습격당한 음력 11월 3일) 유격대에 의해 가족 8명을 잃은 지형창(池衡昌)의 증언을 인용해 보자.

날이 밝자 나는 불타고 가족이 죽은 집에서 망연자실해 있는데 친구가 왔다. 친구는 문남수로서 성산포에 주둔하고 있었다. 세화 출신이다. 그는 고향이 피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대원 5~6명을 데리고 왔다. 그는 내게 와서 “너 원수 풀어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서 부근 밭에 여자 2명을 포함한 16명을 꿰어 앉혀 놓았다.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아마도 도피자 가족인 것 같았다. 세화 사람은 아니다. 문남수는 내게 총을 주면서 “원수풀이 하라”고 했다. 그러나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러자 문남수가 부하를 시켜 쏘게 했다.

이 때 지서 앞에서 문남수의 군인에 의해 죽은 사람은 세화리 피습사건보다도 먼저 끌려와 있던 ‘도피자 가족’이었다. 이런 보복은 세화뿐 아니라 하도, 종달 마을에서도 ‘세화 피습’ 사건 직후 며칠간에 걸쳐 이루어

26) 「제민일보」 연재물 ‘4·3은 말한다’ 세화 편(1997. 4. 11. 제 367회)과 종달리 편(1997. 4. 15. 제 368회).

진다. 「제민일보」 기사를 종합해 볼 때, 실제 11월 4일 이루어진 학살은 해변 마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중산간 토벌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문남수의 군인이 5~6명에 불과했다면, 피습 직후(음력 11월 4일)에 다랑쉬 굴을 토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굴 발견에 길 안내를 맡았던 문씨의 증언이 거짓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현장을 안내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문씨는 지형창 씨의 이런 증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지형창은 당시 거의 모든 가족을 잃은 상황이라 정신이 나가다시피 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성산 주둔 군인들이 배를 타고 세화에 도착하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한데, 그 때 군인들은 4열 종대로 줄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문남수의 군인이 5~6명 뿐이었다는 건 지형창이가 본 사람만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최소한 50명 이상이었다. 사촌 형의 부대를 내가 따라갔던 건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겠는가?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동일한 굴의 두 입구를 ‘큰굴’과 ‘작은굴’로 말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 민보단 간부로 따라 나섰던 오지봉의 증언에는 “굴 입구가 양쪽에 두개였는데……”라는 이야기가 있다. 또 문씨의 안내로 필자가 직접 확인한 큰굴은 1992년 발굴한 굴에서 채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고 보면 이런 추리도 가능할 것 같다. 즉 하나의 사건을 누군가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토벌 일자와 토벌 부대의 불일치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으며 두 가지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름대로의 체험 속에 각기 다른 진실성을 가진 이 증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보았다.

세화 주민들은 11월 3일(음) 습격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격대

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량취 유골 발굴이 대대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토벌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 처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 다량취 학살을 세화리 습격(음력 11월 3일)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서 벗어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 중에 약간의 침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토벌의 날짜가 실제 11월 18일(음)임에도 불구하고, 습격 바로 다음날인 11월 4일(음)로 설정해야 그 학살의 면죄성이 커지게 된다. 물론 11월 4일(음) 성산 주둔 9연대가 배를 타고 세화에 도착했다는 것은 지형창씨의 증언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그 직후 중산간에 대한 토벌이 이루어졌는지는 미확인이다.

다시 말해 재산(在山) 유격대에 의한 피해자인 '세화', 그리고 '문씨'는 '세화습격'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사건을 윤색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혹 그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비극적 소설의 주인공으로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듯이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필자가 문씨를 만나 증언을 들을 때면 그는 언제나 눈물과 함께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문씨의 증언이 너무도 생생했고, 덩불 우거진 동굴 현장을 찾는 그의 길 안내 역시 너무도 정확했기에 여전히 두 가지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에 하나라도 다량취 참사가 두 개의 사건이라면 이번 만큼은 신중하게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번처럼 허망하게 마무리지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또 다시 저 음습한 굴 속보다 더 멀고 어두운 파도 아래로 먼지처럼 가라앉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 번씩 타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날에 책임있는 기관에서 발굴을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잃어버린 ‘다랑쉬 마을’을 조사하다가 다랑쉬 오름과 다랑쉬 동굴 이
아기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 마을보다는 오히려 오름과 동굴이 더 잘 알
려져 있고, 또 그 상징적 의미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었다.

원고를 정리하던 마지막 날에 다랑쉬 오름에 다시 올랐다. 매운 바람이
뺨을 후려쳤으나, 이내 곧 남쪽 경사면에 누워 있으니 바람 소리마저 느
낄 수 없었다. 겨울인데도 햇살이 따스했다. 아기자기한 여러 오름들, 동
쪽부터 용논이, 손지봉, 동거문, 높은오름, 그리고 그 뒤로 좌포미와 백약
이도 한 눈에 들어왔다.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조금 떨어져서 굴부리가
툭 터진 체오름이 다가온다. 그리고 멀찌감치 눈 덮힌 하얀 한라산이 신
비롭게만 느껴졌다. ‘범 없는 산’이 좋았다.

시선을 가까이 당기니, 그 동굴과 대숲, 폭낭과 식수터가 길게 열을 짓
는다. 실제 사람이 살던 당시의 마을 모습은 어떠했을까? 폭낭을 바라보
다 문득 난장이 아저씨의 끔찍스런 학살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수류탄의 폭발음, 검불 피우는 연기, 머리를 바닥에 박고 바둥거리다 눈
과 귀, 코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들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갑작스
레 피냄새의 비릿함이 혹 끼쳐오는 듯 하다. ‘범 없는 산’에 침범한 ‘세속
의 광기’.

상체를 일으켜 후 — 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멍하니 앉았다가 다시 드러누워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인다. 밋지 않은
중장비가 마을로 진입한다. 들들들거리는 기계음 소리가 폭낭 아래 어린
애들 소리마냥 정겹다. 투기꾼들의 작태는 아난가 보다. 이 지역이 4·3
기념 공원으로 변모되는 그나마 쓸만한 ‘세속의 침범’이다. 오름과 마을,
그리고 동굴을 연결시켜 복원해서, 4·3을 조금이나마 실감케 하는 순례
지를 만드는 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

는가? 지금도 동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물들은 역사를 증언코자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팽나무 아래 쇠물통(쇠물 먹이는 연못)은 다시금 생명의 물이 채워지기를 기원하며 태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져 산을 내려오니 노을 속의 폭なが 슬프도록 아름답다웠다.

• 덧붙이는 글

다랑쉬 굴 사건 관련 일지

다랑쉬 굴 학살 사건과 잃어버린 다랑쉬 마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6년 전 다랑쉬 굴 4·3 희생자 유골 발굴 사건이 세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에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 사건의 발생부터 발굴, 그리고 장례식으로 일단락되기까지를 일지 형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²⁷⁾

1. 1948년 12월 18일 : 함덕 주둔 제 9연대 2대대가 다랑쉬 굴을 발견하고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투항을 권유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굴 입구를 넓히기 위하여 수류탄,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굴 속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굴 속의 사람들을 질식사시킬 목적으로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 넣는다. 이 때 굴 속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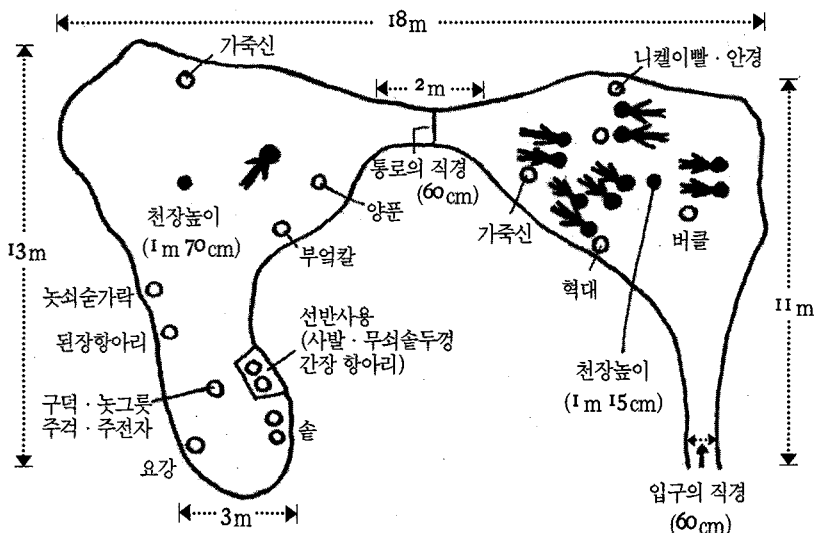
2. 1948년 12월 19일 : 토벌대가 철수한 직후 유격대 구좌 면당부의 지

27) 다랑쉬 굴 학살과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고창훈, 「다랑쉬 굴 발굴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제주 4·3연구소, 『4·3장정 6』, 1993.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김동만, 「4·3에 대한 고증 — 다랑쉬」, 『월간 제주』 1993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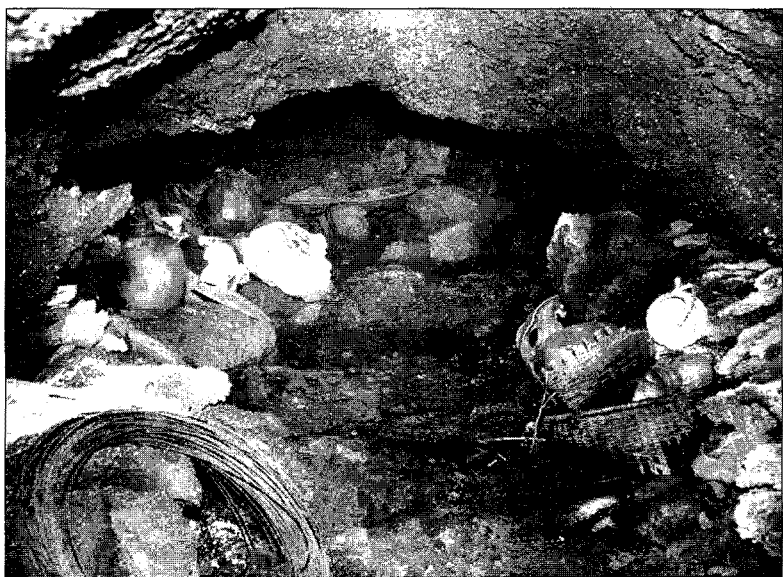


▲ 발굴 당시 다랑쉬 굴 내부도.

시를 받은 채○○, 오치악 등이 굴 속에 들어가 시신을 면포로 싸고 가지런히 정돈하였다. 훗날을 위해 시신마다 번호를 매기고, 그 순서를 수첩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물은 피신생활 중에 분실하게 되었다. 채씨의 증언에 따르면 굴 밖에 시신이 2구, 그리고 굴 속에는 시신이 약 20구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굴 속 시신들은 눈·코·귀로 피를 흘리며, 고통을 이기지 못해 돌 구석과 바닥에 머리를 파묻고 죽어 있었다고 한다.

3. 1992년 3월 22일 : 4·3 44주기를 앞두고서 제주 4·3 연구소가 다랑쉬 굴 유골 및 유품을 공식으로 확인하였다. 물론 실제 이 굴을 발견하고 비밀리에 확인한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었다.

4. 1992년 3월 29일 : 4·3 연구소와 「제민일보」 4·3 취재반이 1차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동굴 안에 총기류는 없는 반면 생활용품과 연장류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입산 주민들의 은신처로 추정했다.



▲ 발굴 당시 다랑쉬 굴 내부의 유골과 유물.

5. 1992년 4월 1일 : 2차 합동조사(현장 검증)와 공동취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제주 4·3 연구소, 「제민일보」, MBC,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부검의사 전신권, 변호사 최병모,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이청규 등이 참여하였다. 굴 안에서 정돈된 시신 유골 10구와 방치된 시신 유골 1구, 그리고 각종 생활도구(호리병, 자귀, 수저, 안경, 바구니, 향아리, 툴, 술, 그릇, 가위, 밥주걱 등)와 수통, 철모, 군화, 철창 3점, 탄피 4점 등을 확인하였다.

6. 1992년 4월 2일과 3일 : 「제민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에서 발굴 사실을 보도하였다.

7. 1992년 5월 2일 : 희생자 중에 일부가 다른 사람으로 판명되어 「제민일보」에서는 이 날 다랑쉬 굴 사망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보도하였다. 시신을 수습한 채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무장대가 아닌 피난민들이었다고 한다. 희생자 11명 중에는 여자가 3명, 9살 어린이가 1명 있었다.

다랑쉬 굴 희생자 명단

사망자	나 이	성 별	출신지
강태용(康泰用)	34	남	구좌읍 종달리
박봉관(朴奉寬)	27	남	구좌읍 종달리
고순환(高順煥)	27	남	구좌읍 종달리
고순경(高順京)	25	남	구좌읍 종달리
고태원(高泰原)	25	남	구좌읍 종달리
고두만(高斗萬)	21	남	구좌읍 종달리
함명립(咸明立)	21	남	구좌읍 종달리
김진생(金辰生)	51	여	구좌읍 세화리
부성만(夫成滿)	24	여	구좌읍 세화리
이성란(李成蘭)	24	여	구좌읍 세화리
이재수(李在洙)	9	남	구좌읍 세화리

8. 1992년 5월 15일 : 파행적인 장례식이 치루어졌다. 직계 가족은 매장을 하여 봉분 만들기를 원하였으나, 모종의 압력 속에 II구의 유골들은 서둘러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졌다. 이 날 7시 30분에 치르기로 된 장례식이 사전 통보도 없이 6시에 거행된 까닭에 도의회와 4·3 연구소 관계자들은 거의 참석할 수 없었다. 유물과 유품의 경우, 성역화하여 보존하자는 도민의 여론이 묵살되었고, 일정한 시기까지 굴을 폐쇄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놓아두자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처리되었다.